

- 주요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의 펜타닐 밀수출 단속 시 관련 관세 폐지 시사
 - 미국 연준 고위 인사들, 12월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
 - 유로존 10월 소비자물가 전월보다 하락. 이탈리아 부총리 금리 인하 주장
 - 중국-캐나다 8년 만에 정상회담, 무역·에너지를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 확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양호한 기술주 실적,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에 영향
 - 주가 상승[+0.3%], 달러화 강세[+0.3%], 금리 하락[-2bp]
 - 추가: 미국 S&P500지수는 아마존 실적 예상 상회로 따른 기술주 강세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어닝시즌 속 차익매물로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 인사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으로 상승
유로화 가치는 0.2% 하락, 엔화 가치는 0.1%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변동이 없었던 가운데 하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1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27.4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29.3원, 0.3% 상승). 한국 CDS 보합

		10/31일	10/30일	전일대비			10/31일	10/3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840.2	6,822.3	+0.26%	국채 금리 10y	미국	4.08%	4.10%	-2bp
	유럽	571.89	574.83	-0.51%		독일	2.63%	2.64%	-1bp
	중국	3,954.8	3,986.9	-0.81%		영국	4.41%	4.42%	-2bp
	일본	52,411	51,326	+2.12%	CDS 5y	한국	22bp	22bp	+0bp
	한국	4,107.5	4,086.9	+0.50%		중국	40bp	40bp	-0bp
	달러지수	99.80	99.51	+0.28%	위험 지표	EMBI+	272	278	-6bp
환율	유로화	1.1537	1.1565	-0.24%		VIX	17.44	16.91	+3.13%
	엔화	153.99	154.13	+0.09%		WTI유	60.98	60.57	+0.68%
	위안화	7.1194	7.1104	-0.13%	원자재	구리	508.9	510.4	-0.29%
	원화	1,433.0	1,435.0	+0.14%		금	4,002.9	4,024.5	-0.5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bp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의 펜타닐 밀수출 단속 시 관련 관세 폐지 시사

-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중국이 펜타닐과 그 원료의 밀수출을 단속하면 중국에 부과한 10%의 펜타닐 관세를 완전히 폐지할 수도 있다고 언급. 아울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레이건 前대통령을 등장시킨 관세 광고에 대해 사과했지만 캐나다와의 무역협상이 재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 한편, 베선트 재무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차단을 위협한 것은 중대한 전략적 실수이며, 미국은 12~24개월 내에 대체 공급망을 확보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양국이 일정한 균형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중국은 더 이상 희토류를 외교적 무기로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
-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고,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중국이 스스로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전망. 미국과 중국은 과거보다 훨씬 나은 소통 채널을 갖고 있으며, 조만간 합의에 대해 서명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확신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연준 고위 인사들, 12월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

-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물가를 다시 목표치로 낮추기 위해 일정 수준의 제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QT)의 종료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지
- 이번 회의에서 동결을 주장했던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노동시장은 대체로 균형적이고,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며 통화정책은 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언급
- 로리 로건 달러스 연은 총재는 이번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히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거나 노동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12월에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정책금리가 여전히 긴축적 영역에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 금리인하에 동의하며, 다만 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돌리기 전에 더 많은 진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
- 반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모든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노동시장은 최대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12월에도 금리를 다시 내려야 한다고 주장

■ 유로존 10월 소비자물가 전월보다 하락. 이탈리아 부총리 금리인하 주장

-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1%로 전월의 +2.2%보다 상승 폭이 축소. 에너지 부문 물가가 1.0%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세 둔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안토니오 타야니 伊 부총리는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계속 강세를 보이면 관세 부담에 더해 유로존 수출업체의 상황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ECB는 금리를 낮추고 새로운 양적완화를 통해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
-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佛 중앙은행 총재는 ECB 통화정책에 대해 현재 좋은 위치에 있지만 고정된 위치는 아니며, 그 어느 때보다 데이터와 전망에 따른 민첩하고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 중국-캐나다 8년 만에 정상회담, 무역·에너지를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 확대

- 시진핑 주석은 양국 관계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캐나다와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카니 총리는 실무적이고 건설적 방식으로 양국 관계가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

■ OPEC+ 12월 생산은 소폭 증산에 그치거나 동결할 전망

- 외신에 따르면 OPEC+는 내년 공급과잉 전망 속에서 시장 점유율 회복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12월 증산 규모를 소폭으로 제한하거나 증산하지 않을 가능성.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강화한 것도 증산에 걸림돌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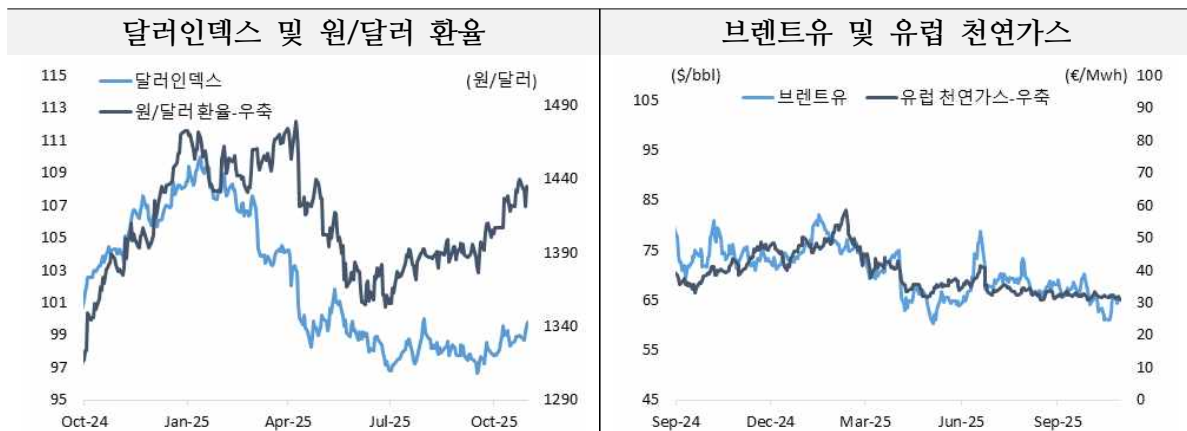
■ 프랑스 하원, 초부유층에 대한 과세 법안 부결

- 하원은 좌파진영이 요구하는 초부유층 재산에 대한 최저세율(2%) 도입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72표, 반대 228표로 부결. 하원은 사회당이 단독으로 제안한 타협안(최저세율 3%)도 부결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31, E-mail jsch@kcif.or.kr